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년)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아모스**

다섯 가지 환상

(아모스 7:1 ~ 17)

원로목사 **이종윤**

아모스 선지자는 다섯 가지의 환상을 보는 가운데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재앙의 환상(7장)과 실과 한 광주리 환상(8장), 제단 곁에 서계신 하나님의 환상(9장)을 봅니다.

(1) 메뚜기 재앙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1-2절).

메뚜기 재앙은 요엘서에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메뚜기는 외세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대개 추수를 두 번하는데 먼저하는 추수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고, 나중에 하는 추수는 자기들의 곁간에 들이기 위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수를 할 때 메뚜기가 나타나 땅의 풀과 곡식을 먹습니다. 이와같이 파괴적인 메뚜기 공격에 대한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2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메뚜기가 풀을 다 먹고 이제는 곡식을 먹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먹겠다고 덤벼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먼저 죄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환난을 주신다고 해도 그때에도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3절).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다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구원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죄를 멸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뀐 것입니다.

(2) 불 재앙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하는지라”(4절).

불의 재앙은 메뚜기 재앙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징벌’은 다룬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불로 다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다는 것은 이방나라와 이스라엘이 모두 불의 심판 아래있음을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5-6절).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스라엘이 지극히 미약한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회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죄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회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어 내리시던 징벌도 멈추십니다.

(3) 다림줄 재앙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8절).

다림줄은 측량줄로 밑에 납덩어리를 단 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죄의 양과 질과 무게를 철저히 재시어 우리를 결코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9절).

다림줄로 심판할 대상은 성소와 왕궁, 곧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정부입니다. 이삭은 여러 곳에 우물을 팠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이 예배하던 곳마다 이삭을 위한 산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사람을 우선한 것입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난관과 시험과 위기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야 합니다. 속히 회개의 기도로 이 벌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어 구원함에 이르는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72주년 광복절

오는 화요일은 제 72주년 광복절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날이다. 일본 치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민주주의 국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또한 남북이 하나 되고, 7천만 민족이 화합하는 제 2의 광복을 바란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진정으로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할 때이다.

2017 여름 수련회

청년2부 : 8월 14일(월) ~ 15일(화), 아가페타운
 에바다부 : 8월 15일(화), 아가페 타운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청년2부	8월14일(월)~15일(화)	아가페 타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서준권 목사
에바다부	8월 15일(화)	아가페 타운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서준권 목사

육군 제 12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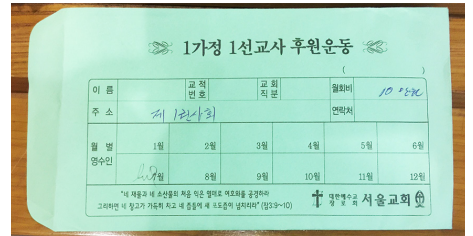
8월19일(토) 오후 2시, 12사단 신교대교회
 교회 출발 : 오전 7시

우리교회 비전2020 운동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 주관으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이 8월19일(토) 오후2시,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 위치한 육군 제12사단 신교대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우리교회 조원영 목사(비전2020지도)는 장병들에게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게 하는 설교를 담당하며 참여하는 교역자들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거행하며 축복의 시간도 갖게 된다. 장병들에게는 하나님과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다짐하는 기회와 군 복음화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독려한다. 이날 행사를 위해 8월19일(토) 오전 7시 교회에서 출발한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기도가 요구된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운동」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금주부터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이름이 기재된 현금봉투가 2층 안내함에 각 교구별로 준비되었다. 후원하기로 작정하신 성도들은 선교현금 시에 본인의 후원봉투를 사용하기 바란다.

또한 지난 주 후원자 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계속해서 사무국에서 접수 중이다.

제2권사회 (3) 최형열 김찬진 (1) 곽숙 (0.5) 김선자 문가림 (1) 박정성 (0.5) 서영세 (0.5) 백대현 (0.5) 백소현 (0.5) 박진형 양도현 (0.5) 박성국 백정숙 (0.5) 김명화 (0.5) 최원석 박길희 (0.5) 이강전 양길순 (1) 유영경 (1) 박태규 송희숙 (1) 김대호 (청소년1) 장명순 (0.5) 황미란 (0.5) 최 단 (청소년1) 최민혁 (청소년1) 박수옥 (0.5) 임만석 임만웅 (0.5) (다음 주 계속)

세례식-오늘 찬양예배 시

8월 세례식(집례 : 이종윤 원로목사)이 오늘 찬양예배 시에 거행 된다.

예수의 비유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I
 (마 13:47-50)

‘그물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내용면에서 결론이 같다. ‘가라지 비유’는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물의 비유’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땅, 곧 밭을 배경으로 하는 가라지 비유는 유대인들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면 그물의 비유는 이방인을 가리킨 것이다.

본문은 천국의 현재성을 말한다. 그물을 바다에 던졌다고 했는데 바다란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왕권이 나타나서 주님의 백성으로 모음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천국의 현재성이란 천국의 지소가 되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에는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들을 모아 오는 것처럼 각종 사람들이 모여 온다는 말이다. 그래서 본문에 각종 물고기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부터 물고기는 성도를 상징했다.

각종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 있는데, 이 가운데는 사람다운 삶도 있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 29절로 30절을 보면 “가라지와 알곡이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에게 말하여 알곡은 곳간에 들고 가라

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라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 것처럼, 물고기도 진짜가 있고 찌꺼기와 같은 가짜가 있다. 그러면 물고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악인에 대한 마태복음은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두 마음이란 마음이 갈라진다는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나 주인 앞에서 충성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기 호주머니, 자기 영광,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만을 집중시키고 있을 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

둘째로, 악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이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임금에게서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고소하여 옥에 가두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하여 그 사람도 결국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자라고 저주하고 있다. 오늘 왜 한국 교회가 이처럼 무능해졌나?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철저히 자기주의에 빠져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이다.

셋째로, 거짓 선지자, 즉 이단 행위를 하는 자가 악한 자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했다. 또 7장 23절

에서는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했다.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면 목숨을 걸고 반대해야 하겠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해서 선한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

넷째로, 배신자가 악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2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사랑을 받고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배신자, 악한 사람이라고 하며 지옥에 갈 자라고 했다.

그물에 온갖 물고기들이 잡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붙잡혀 교회에 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완성된 천국을 이루기란 몹시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하면서 예수 믿기 싫다고 돌아서면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 뒤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시고, 은혜의 표적이 깃들어 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 반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순결하게 빛나고 믿음이 주위를 비추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허다하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제 72주년 광복절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미국 남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자 선교사

제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 남장로교선교부의 간호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32세에 조선으로 와서 19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일제점령기에 당시 한국의 궁핍한 지역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선교사로 활동을 펼친 서서평 선교사를 소개한다. (편집부)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 남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선교사 7인 중 유일한 한국 파견선교사다.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조선 백성들... 나라를 팔아넘긴 자들은 자손 대대로 풍요롭게 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지만 탐관오리들에게 수탈당하던 조선백성들에게는 더욱 피폐한 삶이 있을 뿐이었다.

서서평 선교사(본명 : 엘리자베스 쉐핑 Elisabeth Johanna Shepping)는 1912년 조선으로 왔다. 그녀는 간호 선교사로 새로운 삶을



양자 요셉을 업은 한복 차림의 서서평 선교사 - 요셉은 태어나면서 엄마가 죽고 나환자인 아버지가 개천에 버리려던 아이였다.

맞는 기대감으로 조선에 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힘없는 백성, 가난한 서민, 멸시받는 거지와 따돌림받는 나병 환자 등이 그득한 조선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했다. 푸른 눈을 지닌 독일계 미국인이었던 쉐핑은 조선에 오며 서서평이란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조선어를 하고 한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으며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는 조선 사람이 되었다.

선교사 겸 간호사로 조선에 파견되었지만 서서평으로 살며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되는 것을 보면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었고, 한국 간호학계의 기틀을 만들기도 했다.

처음 맡은 일은 전라도에서 간호사 양성과 기독교 선교활동이었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나 3.1운동이 터지자 조선인들을 치료해 주고 독립운동가들의 옥바라지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일본은 서서평 선교사의 서울 활동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1920년대에는 다시 전라도로 내려가 봉사활동을 했다. 방문 간호와 공중위생에 힘썼으며 인신매매나 공장폐지운동에도 참여했다. 길을 가다가도 머리가 지저분한 여성을 보면 손수 빗질해주고, 속옷이 보이거나 가슴을 내놓고 다니는 여성이 있다면 옷매무시를 고쳐주었다고 한다.

또한 노예처럼 살아가며 인신매매를 당하던 소녀들을 구출해 교육하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인물로 키워내며 14명의 아이를 입양해 키우며 나병

환자의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주변에 알리기도 했다.

서서평은 한국 나병 환자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조선 시대의 나병 환자는 병의 전염성 때문에 따돌림받고 멸시당했다. 서서평이 만든 나병 환자 시설도 주변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시외로 옮겨 새로 만들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서서평 선교사를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했다.

당시 선교사는 생활비로 3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중에서 서서평 선교사가 자신을 위해 쓴 돈이 겨우 10전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을 위해 사용하며 '이일학교'와 '조선간호협회'를 세웠다.

서서평은 삶을 포기한 환자들을 보살피고 보듬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도왔다. 그녀가 목사님과 서울에 상경할 때는 나병 환자와 모여서 대행진을 벌인 적도 있다. 이로 인해 일제총독부는 결국 소록도에 나병 환자 단독시설을 허락하고 지금의 국유지인 전남 소록도가 있게 되었다.

서서평은 선교사이기도 했기에 조선인들에게 성경의 출애굽기를 가르치며 해방의 꿈을 가지도록 도왔다. 자신의 월급을 쪼개서 운영비를 마련하며 시작한 이 사업은 한국의 문맹 퇴치에도 많은 공헌을 했다.

또한 1923년엔 조선간호부회를 조직했다. 국제간호협회(ICN)에 가입하려고 노력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이 단체는 지금의 한국 간호협회의 모태가 되었다.

1922년 설립된 이일학교(Neel Bible college)는 처음엔 학대받는 여성들, 배울 기회를 못 가진 여성들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후 미국인 친구 로이스 니일(Lois Neel)의 후원을 얻어 그의 이름을 따 정식으로 지은 것이 이일학교로 지금의 한일장신대학교이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열 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1921년 서서평선교사가



조선인들의 어머니,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엘리자베스 쉐핑(Elisabeth J. Shepping), 서서평

내쉬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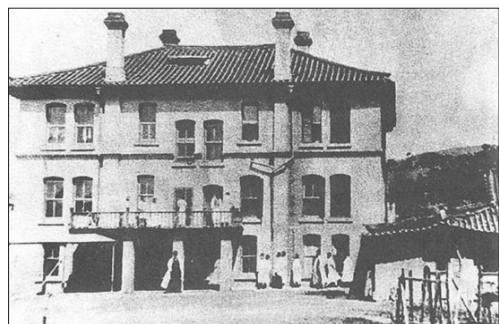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초기만 해도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으며 힘없는 계층의 여성들은 성매매에 희생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서서평 선교사는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조선 여인들의 인권을 무척이나 안타까워했다. 부인이면 ‘대전 맥’, 어리면 ‘큰년’ ‘작은년’ 같은 명칭을 이름 대신 불리며 자신의 인격이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조선 여성들을 보며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 여성의 교육을 절감했다.

서서평은 1934년 만성 풍토병과 과로로 숨졌다. 그녀가 남긴 것은 담요 반 쪽, 동전(銅錢) 7전(錢), 그리고 강냉이 2홉, 그리고 담요 반 장이었다. 그나마 있던 담요 한 장마저도 길거리의 거지를 위해 반을 잘라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서평의 장례식에는 도움을 받은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서서평 선교사를 어머니라 부르며 통곡했다. 유언에 따라 시신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되었다.

평생을 척박한 조선과 조선 여성을 위해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 무명 배움과 고무신 차림에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는 푸른 눈의 선교사 서서평은 조선 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산 것이다.

서서평 선교사의 침대 머리맡에 적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문구는 이기적인 행복만을 쫓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다.

정리 : 허 숙 권사(편집부)



위: 서서평이 근무한 1920년의 광주 제중원 아래: 서서평 묘비

2017 여름 수련회 초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박유진
(청년2부외장)

2017년 청년2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1박 2일 동안 아가페 타운에서 진행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는 '안양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강지훈 목사님의 저녁 말씀, 청년부를 이끌고 계시는 서준권 목사님의 아침 특강과 함께 짧은 일정이지만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로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학업, 일, 관계, 교회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분노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청년 여러분! 삶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순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서울교회 청년 모두를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끝으로 준비하는 여러 모양의 섬김과 기도의 손길에 감사하며, 은혜 가득한 수련회가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7 성경 암송대회

범위: 베드로전서 1~5장
본선: 10월 13일(금) 오후 7시

2017년도 성경암송 본문은 베드로전서 1-5장이다. 예선은 10월 1일(주일)에, 본선은 10월 13일(금) 오후 7시에 시행한다. 교육1국에 한하여 미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장을, 취학부서는 베드로전서 1-3장을 암송한다. 암송 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1984년 개정판) 성경으로 한다.

한편 성경암송대회 전까지 수요일예배 설교를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 현재 3장 22절까지 설교하였다.



동정

■ 금주 식사 제공 : 교회제공

나의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정동호 집사
(미국버지니아)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봄 날 같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로 접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랑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여서 온 것인지 구분하지도 못할 만큼, 좌충우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아 주셨으므로, 크고 작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잡아 주셨으므로 그나마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셔도 뭉에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망간 요나를 사용하셔서라도 그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요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이역만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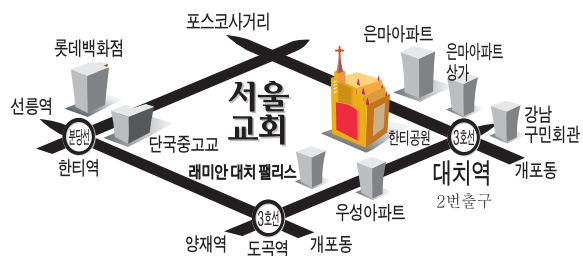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모든 성도들이 성령충만하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기도하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 8월 14일(월)-15일(화) 청년2부 여름수련회와 8월 15일(화) 에바다부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하나 되는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 12사단 진중세례식(8월 19일, 토)을 통하여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나라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지켜주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이 이루어지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예배	오전 9시
	II부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부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I부예배	오전 11시
	II부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분당 II층

교회 오시는 길



서울교회QR코드

